

투데이칼럼

태풍, 그리고 산업현장의 안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의 작업자와 설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산업 현장 안전관리자와 경영진,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태풍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풍이 물고 오는 강풍과 폭우는 건설현장의 크레인, 임시 가설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고소작업이나 옥상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낙하물이나 붕괴된 구조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고정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김용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부장

시 고정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는 산업현장 내 침수 및 홍수 피해를 가져온다. 지하 시설, 저설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붕괴시킬 경우 기계 고장과 전기 사고는 물론, 심각한 갑작 사고와 질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침수된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며,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태풍이 예상될 때 산업현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한 예방과 대피'다.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 모두가 비상 연락망과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 설비에 대한 방수 조치, 임시 구조물 해체, 배수 펌프 점검 등 사전 대비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태풍 전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이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심과 준비 부족으로 큰 피해가 반복된다. "이번에도 무사할 것이다"라는 낙관은 위험을 키울 뿐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기후와 맞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태풍이 가져올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

독자제언

반칙운전, 작은 이익보다 큰 안전을 생각할 때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반칙운전' 문제로 크고 작은 사고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차기 유턴, 꼬리불기, 끼어들기, 불법유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미준수 등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에 교통경찰서는 '기초질서 확립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맞아,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반칙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칙운전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도로 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이나 제한 속도 초과는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교통질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바로 설 수 없다. 시민의 협조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결국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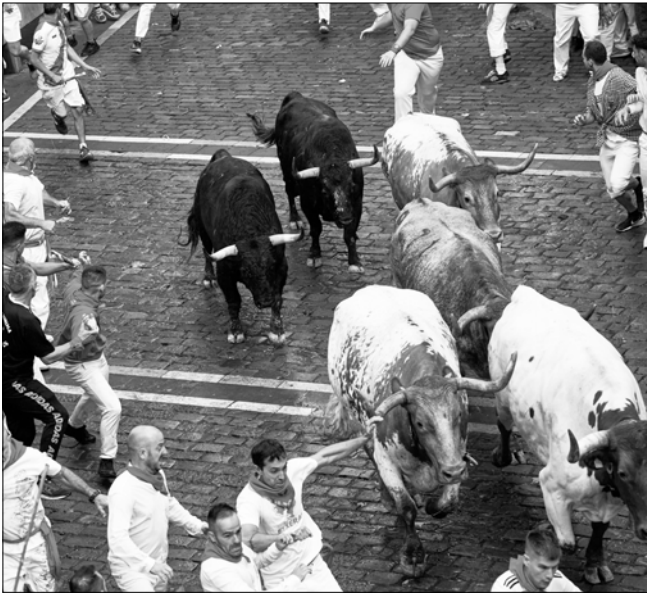
우리는 앞으로도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칙운전'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통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교통질서 확립 대책 추진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교통질서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반칙운전을 멈추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기초질서 유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다.

오경택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소를 피해 달려라”



7일(현지 시간) 스페인 팜플로나 광장에서 산 페르민 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이 소와 함께 달리는 소몰이 행사(엔시예로)를 하고 있다. 산 페르민 축제는 매년 7월 열리는 행사로 참가자들이 출발 지점에서 투우장까지 약 850m를 질주하는 황소 무리를 피해 달리는 엔시예로가 대표 이벤트이다. 한편, 이 축제는 '전통 축제'와 '동물 학대' 사이에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우선,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데 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게 첫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을 돌아보며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1호 처리 법안인 내란, 갑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에 다시 한 번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

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아, 그거 왜 뺐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했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라며, 검찰의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완료 시점은 국회 결단에 달했다면서, 완벽한 제도 정착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 구조는 곧 정리될 거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지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인사에 대해 지지층의 불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동방목연전

'2025 동방목연 展'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이는 '동방서예 캘리그래피 연구소' 정기회원전이

다. 행사 주회는 (사)필 문자 디자인연구소이고, 한국미술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다음카페 서예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수현사가 후원했다. 참여 작가는 32명이다.

서예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동방목연 회원들은 서기(書氣)가 가득한 정통 서예에서 현대적이고 조형성 있는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같은 날자, 같은 장소에서 <2025 석인(石人) 강수호(康守鎬) 展>이 열렸다. 석인(石人) 고경당(敬耕堂) 강수호 서예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출신이다.

강수호 서예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특선2회·입선5회(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특선2회(현대서예문인화협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종합대상·특선4회(문화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동일서예대전 우수상·특선(한국종교서예인협회), 전국서화백일대상전 대상·동상·특선2회(한민서화회), 대한민국서예고시대전 특선상·특선(서예고시협회), 전국춘향미술대전 특선(한국미협남원지부),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특선·입선(미술문화원), 서예대전 장려상·입선(미술문화원), 동아미술제 연인선(동아일보사), 한국서예청년작가 3회선발(예술의전당) 등 경력이 화려하다.

임서희 동방목연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동방목연이 한층 더 발전하고 회원들의 작품세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